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등 친환경·안전 강화 창호산업 발전 기여



박영배 회장



(주)글로윈스

(주)글로윈스(회장 박영배)가 '제8회 2013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 회사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획득하고 창 세트 소비효율등급 3등급의 ECO단열커튼월창, 추락방지용 SSTL 안전바 내장 아이안203 등 친환경창호 및 안전창호를 제작·시공하는 업체로 창호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글로윈스는 지난 1987년 11월 미공건업으로 설립된 이래 1997년 7월 미공창호주식회사로 법인전환 후 사업을 영위하다 2013년 4월 주식회사 글로윈스로 상호변경 후 현재까지 창호시스템의 기술혁신을 선도하며 성장기도를 달리고 있다.

무엇보다 개발 제품의 기능과 효

율이 뛰어나다. 글로윈스의 뉴에코 이중단열커튼월은 기밀등급 1등급과 열관류 1.475[W/(㎡·K)],

1.672[W/(㎡·K)]의 환경마크인증을 보유한 제품으로 관공서, 오피스 건물, 공공주택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이끌며 연간 약 2,000여억원 수요 이상 규모의 창호시장에 조달청과 국방재정관리단, 지방자치단체 등에 납품·시공하고 있다.

또한 아이안203 안전창은 초·중·고교 학교 전용 창으로서 창 세트 3등급과 환경마크인증을 획득하고 독보적인 기술과 아이들의 안전

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품으로 전국 각 시·도 교육청과 초·중·고교 학교 창호교체 및 신축 등 연간 약 500억원 이상의 창호시장에 고객 감동과 품질 경영 방침의 토대로 전략적인 마케팅 영업을 우선으로 납품 및 시공할 계획이다

이 같은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으로 '창호시스템의 단열과 안전기능을 구비한 프레임의 구조', '창호에 내장되는 안전바의 구조', '한지와 목재 창살을 이용한 이중 창호시스템 및 그 시공방법', '창호 프레임용 지지바, 지지구 디자인', '조

건설사로부터 유럽 패시브하우스 규제 강화에 적합한 건축기자재 요구에 따라 이를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 창호 단열구조를 개선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글로윈스는 양쪽미닫이(슬라이딩) 창문세트 1등급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열관류율 0.8W/(㎡·K) 이하의 성능을 충족하고, 기밀성능 0.2m³/h㎡ 이하 제품을 생산해 창호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세트 소비효율등급 1등급제품을 구현해 최종적으로 에너지절감 및 저렴한 가격 경쟁력, 제품의 가공조립의 자동화에 근접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겠다는 포부다.

박영배 회장은 "오는 2016년 유럽 패시브하우스 규제 만족을 위한 대체 기술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내외 기술동향 파악 및 기술개발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에코 단열커튼월 등 창호시스템 기술혁신 선도

친환경인증 획득한 아이안203 안전창은 타사제품에 없는 추락방지 안전 난간대를 문짝 속에 내장함으로써 타사 제품보다 가격이 20%저렴하면서 창을 닫았을때 안전난간대가 보이지 않는 장점이 있다.

뉴에코 단열 커튼월 역시 강력한 단열구조를 바탕으로 단열성 및 기밀성능이 타사 대비 월등하며 약 25%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다.

합식 안전 차단부재를 구비한 창목후래임' 등의 특허등록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스마트 윈도우(Smart window) 관련 4건의 특허출원을 신청했다.

또한 글로윈스에서는 양쪽미닫이(슬라이딩) 창문에서의 종래 기술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국내외 기술 경쟁력 및 원가 경쟁력을 갖추는데 일조했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국내 주택

건설현장 전기·계측 시공분야 혁신 주도

건설사업관리 전문 신기술·신공법 구현



대덕전설(주)



최태영 대표이사

대덕전설(주)(대표이사 최태영)은 국가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건설현장에서 전기·계측 시공분야의 혁신적인 활동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8회 2013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 회사는 1983년 창립 후 전력공사, 산업플랜트, 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건설현장 전기·계측 시공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발휘해왔다.

또한 수많은 공사에 참여해 축적된 시공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위권 전기공사업체로서 관련 분야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으며, 친환경자재 및 근로자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대한제분, 현대제철, 대우자동차판

대덕전설은 전기 시공 건설사업의 성공은 최소의 비용으로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공사를 진행했는지 성공의 핵심임을 주지하고



(주)한국씨엠기술원



황효수 회장

(주)한국씨엠기술원(회장 황효수)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에너지절감 등의 획기적인 신기술 구현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8회 2013 대한민국 건설환경기술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 회사는 2004년 설립된 이래 건축기획 및 설계, 건설사업관리, 설계경제성검토, 주택건설 및 대지 조성, R&D영역의 전문기업으로 건설사업관리(CM)를 적용해 사업수익성 개선 및 효율적 공사추진을 돕고 있다.

문화 건설에 성공적인 결과를 이뤄냈다.

지난 해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개최한 '2012 한국녹색건축대전'에서 소규모의 건물로서는 유일하게 국립디지털도서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등 녹색성장기술이 적용된 유수의 대형건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저탄소 성장을 위한 녹색기술이 적용된 주거건물의 대중적인 보급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은 셈이다.

서고스마트홈은 사업진행의 성공적인 관리를 위한 조력자 역할

할수록 건설공사의 새로운 주거환경개선에 선도역할을 담당한 것 뿐만 아니라 에너지절약에 큰 기여를

산업플랜트·환경·신재생에너지 공사 안전관리 최우선

건축기획·설계·CM 전문기술력 바탕 에너지절감·사업수익성 개선

때,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이수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한화건설, 한화63시티, 대우건설, 한라산업개발, 현대중공업, 현대엔코, 현대위아, 현대로템 등 수많은 도급처의 공사를 담당해왔다.

환경 분야 하수·폐수·쓰레기소각장·집진기 공사, 발전·보일러·빌딩·학교·아파트 전기공사, 제철·철강 전기공사, 제지 전기설비공사, 정유·화학·식약화학 전기공사, 플랜트 설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적을 쌓았다.

올해에도 부천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시범사업 전기공사를 9월까지 수행하며, 당진공장 전기수리를 연말까지 도맡았다. 또한 오는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신사옥 건설공사(전기공사)를 진행한다.

이 외에도 대한제분 고압 변전설비 노후 교체공사, 영등포구 당산동 제2지역 조합아파트 임시전력 설치공사, 정릉 제10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중 일반전기공사 및 가설전기공사 등을 상반기 내 마무리했다.

특히 인간존중, 품질시공, 고객만족이라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도전과 혁신의 조화를 통한 경영정보의 투명성 강화와 최고의 기술력 및 품질수준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을 도입해 전기 시공업체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다.

또한 ISO 9001:2008 획득 등 품질기술력에서도 인증을 받아 기업가치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대덕전설은 지난 2012년 전국 전기공사업체 1만3,372개 가운데 시공능력평가액 192위에 선정되는 등 매년 우수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두산건설, 현대엔코 등 국내 주요 건설사와 협력업체로 등록, 모범경영과 시공능력을 인정받아 '우수협력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해외시장으로도 발을 넓힐 계획이다. 대덕전설은 현재 전기, 소방, 통신공사 외에 해외건설업 면허를 취득해 해외공사로 범위를 넓혀가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전문기업으로써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태영 대표이사는 "대덕전설은 임직원 모두가 최고의 기술력과 자신감으로 무장해 타 업체에 비해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만족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행각하며 꾸준히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근면과 창의', '기술의 혁신'이라는 사훈 아래 건설사업관리와 설계경제성검토 전문기업으로 약 8년여간 업계에서 꾸준히 활동해왔다.

장기간에 걸친 건설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든든한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으로 업계에 정평이 났다.

최근에는 주택재개발·재건축시장에도 건설사업관리의 이혼과 실무를 적용하면서 조합원들의 이익과 성공적인 사업의 추진에 밀접한 역할을 해오며 그에 대한 전문성을 크게 인정받고 있다.

한국씨엠기술원은 특정업역에 국한하지 않는 공격적인 활동으로 꾸준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사업에 CM개념을 도입해 '서고스마트홈' 건설 프로젝트에 에너지절약·친환경 IT신기술을 개발·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주거

뿐만 아니라 직접 시공까지 사업 전체를 책임지는 At Risk 방식의 CM을 적용해 이전까지의 도시형 생활주택과는 다른 새로운 도시형생활주택의 사업모델을 제시했다.

황효수 회장은 서고스마트홈 건설을 위해 분야별 고유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체들과 기술 협약을 체결했고 저탄소 녹색시장에 발맞춘 15가지 신기술을 개발 및 적용했다.

기획·설계 단계에서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을 위한 LH공사 및 신기술 보유업체와 업무협약을 통해 실시간 에너지사용 정보제공, 다세대 통합 태양열 하이브리드 보일러 설비, 직접열복사 판넬 난방, 타임스케줄 난방제어 기술 등이 적용됐다.

또한 VE수행으로 생애주거비용 LCC분석 결과 9.4% 절감, 반면 가치는 52.6% 향상하는 성과를 얻어 시공부터 유지관리까지 도시형생

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아울러 현재 한국CM기술원은 신기술을 도입 적용한 LED 관련 상품 개발사업에도 참여해 Dimming이 가능한 친환경LED 기실조명의 신제품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향후 에너지절약과 녹색성장에 발맞춘 새로운 건설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다.

황효수 회장은 "약 45년간 건설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구축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단순히 건설분야에만 국한하지 않고 토털 솔루션 신기술을 기반으로 산업전 분야에 걸쳐 진취적인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면서 "CM전문기업으로 건설사업 효율화는 물론 고객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신기술 신공법 적용 확산에 앞장서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에너지절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